미국의 사내 옴부즈맨
북미 옴부즈맨대회를 중심으로-

前澤　猛
일본요미우리신문사　신문감사위원

프롤로그

「보도의 공정과 정확을 지키기 위해서, 보도는 시민으로부터 감시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프로를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1985 년 6 월 15 일 토요일 밤 미국의 ABC 방송은 『보도의 자유와 인권』을 테마로 한 특별프로를 이렇게 끝맺었다. 「감시」와 「본다」를 「워치」(Watch) 라는 공통어로 잘도 연결 지어 놓았다.
이 프로에서 역설된 것을 보면-
① 미국의 보도기관에 있어 증가일로에 있는 명예훼손소송은 큰 부담이 되어가고 있다. 특히패소한 경우의 막대한 배상액은 보도기관을 위협하고 있다.
② 한편 보도기관 중에도 인권문제와의 관계 때문에 무엇이든지 쓴다, 싣는다고 하는 종래의 방식에 대한 반성이 일고 있다. 예를 들면 시카고의 한 신문은 잔혹한 사고사진을 실은 지면과 이를 바꾸어 그 자리에 꽃사진을 실은 지면의 두 종류의 신문을 발행해보았더니 후자를 본 독자로부터는 아무런 항의도 없었다.
③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도에 대한 시비를 판단해 온 전국뉴스평의회는 1985 년 봄에 해체되어, 현재 활동하고 있는 동종의 평의회는 미네소타 주의 뉴스평의회뿐이다. 그러나 보도의 자율적 규제를 도모하기 위해 이러한 평의회의 필요성은 높아 가고 있다. 또 일부의 신문, 텔레비전에서 채용하고 있는 사내옴부즈맨의 활동도 평가받고 있다.-는 것 등이었다.
사내 옴부즈맨은 보도의 윤리와 인권존중의 수준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들 옴부즈맨들로 만들어진 「뉴스 옴부즈맨협회」의 1985 년 연차대회가 이틀 후에 열리기로 되어 있는 그러한 시점에서 이러한 테마의 프로가 방영되었다. 그것은 우연이었을까.
ABC 방송의 왓슨 부사장은 이 옴부즈맨협회의 회원이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미국에서는 최근에 와서 급격히 「보도윤리」에 대한 매스컴 내외의 관심이 높아 가고 있다. 이것이 옴부즈맨대회를 계기로 그러한 프로를 방영하게 한 배경이 된 것 같다. 대회는 6 월 17 일부터 19 일까지 3 일간 미국의 미네아폴리스 시(미네소타 주)에서 열렸다. 미국에서 유일한 주평의회가 미네소타 주평의회라는 것은 앞에서 지적됐지만, 그곳의 신문인 미네아폴리스 스타 앤드 트리뷴 지에서는 게르판드 씨가 사내 옴부즈맨으로 활약하고 있다. 독자로부터의 편지라든가 전화를 혼자서 도맡아 정정란(마이니치)과 칼럼(주 1 회)을 쓰는 바쁜 몸이다. 백발이 성성한 60 의 나이이다.

옴부즈맨의 현황

신문뉴스평의회 및 신문뉴스옴부즈맨의 설립을 바라는 소리는 일본에서도 높다.

신문옴부즈맨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는 것 같으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정확하게 전해져 있지 않은 것 같다. 한마디로 「신문옴부즈맨」 이라고 해도 스웨덴형과 북미형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

옴부즈맨(Ombudsman)은 원래 스웨덴어로서 스웨덴어영어사전에는 「Representative」(대리인)이라는 영역이 붙어있다. 스웨덴에서는 프레스 옴부즈맨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신문평의회가 임명권을 가져 동 평의회와 일체가 되어 신문보도에 관한 윤리적 판단을 내리고 있다. 범죄용의자의 보도에서는 신원을 알 수 없도록 배려하는 등 엄격한 보도자세를 요구하고 있다.

신문평의회는 신문계가 공동 운영하는 자율규제기관이나, 프레스 옴부즈맨은, 일단 취임하면 코미쇼너적인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 받는다.

이에 대해 북미의 뉴스 옴부즈맨은, 어디까지나 각 사가 독자적으로 임명, 각사의 사내규칙에 따라 보도윤리의 향상을 도모하는 사내 옴부즈맨이다.

옴부즈맨 그 자체는 물론 스웨덴(1809 년에 채용)이 발상지이나 신문옴부즈맨은 미국이 2 년 앞서고 있다. 「1967 년 켄터키 주 루이빌의 꾸리에 저널과 루이빌 타임즈 양지겸임으로 최초의 프레스 옴부즈맨이 시동했다」고 뉴스 옴부즈맨협회에서는 말하고 있다.

연차대회가 열리고 있는 시점에서 동 협회의 구성원은 45 명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회원 39 명[미국의 신문옴부즈맨 31 명(30 개지), 캐나다의 신문옴부즈맨 5 명 (5 개지), 미국의 텔레비전 옴부즈맨 3 명 (2 개사)].

준회원 6 명[미국의 매스컴연구자 4 명, 스웨덴의 프레스 옴부즈맨 카슈 씨, 일본 요미우리신문사 신문감사위원 前澤 猛씨].

미국의 일간지 1 천 수백 개 중에서 30 개지라는 숫자는 엄청난 소수파이다. 그러나 발행부수 상위 20 개지[미국신문발행자협회(ANPA)발표, 1985 년]를 보면 그 중의 4 개지(워싱턴 포스트 지,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 지, 보스턴 그로브 지, 미네아폴리스 스타 앤드 트리뷴 지)에 옴부즈맨이 있다. 또 이들 30 개지에 일반적으로 평가가 높은 신문이 많다.

텔레비전은 3 대 네트워크 가운데 CBS 와 ABC 에 옴부즈맨이 있다.

이와 같이 스웨덴과 북미의 옴부즈맨은 역사나 기구 면에서 또 규제의 내용에서도 큰 상이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사내로부터 또는 사외로부터 각각의 국정에 맞추어 함께 보도윤리의 향상을 지향한다는 목적은 공통되어 있다.

옴부즈맨의 지침

스웨덴의 신문평의회나 프레스 옴부즈맨의 「헌법」으로써는 「프레스의 윤리강령」이 있으며 인권, 프라이버시의 존중을 강력하게 내세우고 있다.

북미의 뉴스옴부즈맨들의 「헌법」으로써는 다음과 같은 지침이 있다.

◇ 신문옴부즈맨의 목적

① 신문의 공정, 정확 및 사회적 책임의 향상을 도모한다.

② 신뢰성을 높인다.

③ 질적향상에 노력한다.
④ 사회적인 관심사나 문제로, 사회에 공헌하도록 주의를 환기시킨다.
◇ 옴부즈맨의 직무
① 내부비판의 역할을 다한다.
② 고충, 조언, 질문, 찬의 등을 보낸 독자의 대리인이 된다.
③ 고충은 이를 모두 조사하여 그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면 정정하도록 권고한다.
④ 고충에 근거하여 담당편집자에게 경고한다.
⑤ 신문이 선택한 방침이나 자세를 시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강연이나 집필활동을 한다.
⑥ 정확하고 올바른 일일 때는 공사에 걸쳐 신문을 변호한다.
◇ 이상의 목적과 직무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수단을 취한다.
① 칼럼
② 사내메모
③ 간부회의
④ 질문조사
⑤ 강연
◇ 옴부즈맨의 지위는 독립적이어야 하며, 그것은 명목적이 아닌 실질적인 것이어야만 한다. 옴부즈맨의 직책은 편집국에 대해서가 아니라 사의 최고책임자에 대해서만 진다.

옴부즈맨의 이상과 현실

대회의 토의, 발표 가운데 옴부즈맨들의 흥미를 끈 것 중의 하나는 「북미옴부즈맨조사」였다. 이것은 1984 년 미네소타대학에 설립된 「매스컴윤리법연구센터」가 실시한 앙케이트조사로써 신문옴부즈맨 32 명의 회답을 집계, 분석한 것이다.
평균연령은 55 세로 일본의 전통적인 정년과 같다. 이 나이에서 옴부즈맨의 활약이 기대된다는 것은 참으로 흥미 있는 일이다. 연봉은 4 만 달러(약 3 천 5 백만 원)~5 만 달러(약 4 천 4 백만 원)가 12 명, 5 만 달러 이상이 11 명.
워싱턴 포스트 지의 자고리아 씨나 겔판드 씨는 커뮤니케이션의 전문가이긴 하지만 사외로부터 초빙된 사람들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사내경력이 길다. 현직의 신문사에서의 근속연수는 평균 22 년이나 되었다. 실제적으로 옴부즈맨들은 말을 하는 가운데 심심찮게 기자, 데스크, 편집간부로 있었던 실무경험을 자랑했으며, 그것이 옴부즈맨으로서 일을 하는데 있어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자신을 비치고 있었다.
「뉴스옴부즈맨」은 전원에 공통되는 통칭이며, 회사에 따라 각각 호칭이 다르다는 점도 주목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명칭이 아니라 그 내용이다.
「옴부즈맨」 17 명, 「뉴스옴부즈맨」 2 명, 「독자대리」 8 명인데 이 「독자대리」도 「독자」가 단수가 있는가 하면 복수가 있는 등 영어에서 다섯 가지의 표기가 있었다.
옴부즈맨들의 의식면을 보면 「옴부즈맨은 신문과 독자간의 중립적인 중재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명제에 88%인 28 명이 동의를 표명했다.

또 「옴부즈맨은 최종적으로는 독자에게 충실해야만 한다」는 데도 동수가 동의했다.
그러나 그 반면 「옴부즈맨은 최종적으로는 신문에 충실해야만 한다」는 설문에는 15 명이 동의하고 15 명이 부동의 표시하여 완전히 분열했다.(일본 「신문연구)1985 년 8 월호)